

“산이 곧 정원... 자연과 조화, 미래의 상징 공간”

해남 솔라시도 '산이정원' 가보니
총 16만평... 내달 4일 1단계 개장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 조성
자연호수·가든뮤지엄·테마정원 등
“모든 세대 즐기는 복합예술공간”

“해남 산이면의 지명을 활용해 이름 붙인 산이정원은 '산이 곧 정원이 된다'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해남의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솔라시도의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23일 오전 11시께 찾은 해남 산이정원은 소담한 사초(莎草)들을 흠날리며 개장 전 미리 찾아온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정식 개장을 앞두고 남겨두고 막바지 정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잘 정비된 정원이 주는 특유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이미 가득했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초입에 위치한 산이정원은 보성그룹이 솔라시도 내에 조성하고 있는 9개의 정원 중 '태양의 정원' 이후 두 번째로 조성하는 정원이다.

16만여평의 부지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개발 중이며 오는 5월4일 1단계 16만5289㎡(5만여평)에 해당하는 다채로운 테마를 가진 정원들을 공개한다. 2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산이정원' 1단계 조성 공사가 완료돼 오는 5월4일 정식으로 개장한다. 사진은 산이정원 내 가든뮤지엄으로 갤러리와 브런치 카페, 세미나룸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계 36만3636㎡(11만여평)는 내년 5월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산이정원은 앞서 조성된 태양의 정원과 달리 일반인에게 처음 개방하는 정원으로, 짧은 순간에만 빛나는 화려한 색채의 꽃으로 채운 기존 정원과는 다른 모습과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전남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성장·변화하는 식물과 함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순

간의 즐거움보다는 여운이 남는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맞이정원 △노리정원 △물이정원으로 이뤄진 산이정원의 첫 공간인 '기억존'에서는 독특한 지형을 그대로 살린 낮은 구릉들과 지형 특성상 자연스레 물이 모여 만들어진 자연호수 등을 만날 수 있다.

자연호수를 넘어 자리한 가든뮤지엄의 경우 해남 산이면 일대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 뒤편의 산세와 어우러지는 곡선으로

디자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형물이 가미된 동화정원, 전망대와 웨딩가든을 동시에 품은 약속의 정원 등이 조성을 마치고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 공개 예정인 2단계 부지의 △클럽 팡장 △어린이 골프장인 플레이가든 △와이너리 가든인 열매정원 △열대식물원 등 복합 문화공간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산이정원은 기업도시 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특

특히 해낼 전망이다.

오는 5월4일에 진행되는 산이정원 개장식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개장식과 함께 갤러리가든에서 '2024 산이정원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가 개최된다. 수상작은 산이정원 가든뮤지엄 갤러리에 전시된다.

이외에도 전남도청, 해남군청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산이정원 어린이 봄소풍' 행사도 개최된다. AR 보물찾기, 마임공연, 가든음악회, 가족사진 촬영, 만들기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기 있는 캐릭터 음악극인 '브레이브발소'도 기획공연으로 준비됐다.

산이정원은 개장 이후 보안을 통해 가드닝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반려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가드닝 교육부터 숲해설 및 생태탐구, 목공 등 예술·창작 프로그램, 명상·요가 등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산이정원 조성의 총괄책임자인 이병철(주아영 대표이사는 '산이정원을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미래환경'을 꿈꾸는 정원이라는 두 가지 비전으로 조성하려 했다"며 "정원의 매력은 물론이고 수목원과 산책로 미술관, 카페, 친환경놀이시설 등을 갖춰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정원과 자연을 체험하는 복합 예술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곽지혜 기자 jihye.kwak@jinilbo.com

조국 “호남 비례대표 1위는 유권자의 믿음 때문”

총선 후 첫 행선지 광주·전남 방문
“尹정권 심판...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올린데 대해 “호남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이 조국혁신당이

총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더 잘 실현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선거 이후 첫 행선지로 호남을 선택, 이날 광주와 전남을 찾았다.

조 대표는 이날 당선인들과 함께 광주

를 방문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유권자들이 총선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조국혁신당을 비례대표 1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호남 유권자들은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주셨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구호

외치고 빠지는 것 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할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여러 야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만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조 대표와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오후에는 신안군 하의도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이어 오후 7시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총선 승리 보고대회 행사를 가졌다.

▶ 관련기사 3면 노병하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